

사설

고성명태축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3회 고성명태축제 종합실행 계획을 확정지었다. 개최시기는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거진항 일원으로 정했다. 또 12개분야 59개 프로그램을 결정했다.

축제위원회는 이번 명태축제를 이벤트성 축제가 아니라 명태의 브랜드화를 통한 수익창출의 생산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전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밝혔다. 그런데 이날 확정된 계획을 살펴보면, 명태축제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다.

축제를 크게 두가지로 분류한다면, 주민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수성문화제와 같은 '지역 문화제'와 특정 특산물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브랜드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특산물 축제'가 있

다고 하겠다. 고성명태축제는 바로 특산물 축제다.

따라서 고성명태축제의 목적은 명태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벌고, 또 고성명태의 브랜드를 높여서 축제 이후에도 꾸준히 고성명태를 사 먹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축제의 효과

로 인해 똑같은 명태라도 고성에서 잡히거나 가공된 명태 또는 고성에서 먹는 명태찌개는 다소 비싸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런데 올해로 벌써 13회째를 맞이하는 고성명태 축제는 이러한 축제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개최시기를 10월로 한 것이다. 과거처럼 명태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2월달에 개최하던 것을 옮기 때문에 앞당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명태는 한류성 어족으로 겨울에만 잡힌다. 현재 어획량이 거의 없어 냉동명태로 축제를 치

루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명태의 특성 자체를 무시한 것이어서 개최 시기로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빙어축제를 얼음이 얼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송이축제를 한 여름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 관광객 씨름대회 등 일부 프로그램

은 도대체 왜 개최하는 건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명태를 사거나 먹으러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이 씨름을 하고 싶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아울러 특산물 축제는 지역문화제와 달리 주민화합을 일궈거나 지역을 널리 알렸다는 것에 큰 의미를 뒤서는 안된다. 수익과 연결돼야만 축제 개최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축제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축제 관계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으리라는 우려도 있지만, 고성명태축제가 양양송이축제를 뛰어 넘어 진정 전국 제일의 특산물 축제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한 것임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아무쪼록 고성군을 비롯한 지역의 모든 기관들과 사회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 남지 않은 명태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마음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성명태축제의 성격

사람은 출생으로부터 正命(정명, 명령을 바르게), 天數(천수, 나이는 하늘이), 乾命(건명, 하늘의 명령에 따라), 坤命(땅에서 생명을 부지), 天壽(천수, 하늘이 주고 빼앗는 목숨) 타고난 天命受命(천명수명)이라고 하였다. 천부인권의 자연권으로서 신성불가침성, 불가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사회 생활엔 권리의무와 일상생활엔 도덕성과 양심을 가진다.

금강칼럼

김 종 식
객원논설위원



사람만이 가지는 자연권

우리는 이성의 지혜를 사랑한다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규범적 가치적 신으로서의 생각하는 동물이다. 따라서 선악선량의 변별력이 있는 갈대이다. 인류는 우주제반의 사상은 모두 신의 의지를 좇아 완전무결하며 그것이 안보이면 인간의 사고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Pope.A. 인간론) 인간세계는 인간의 바탕이 인간답게 제구실을 다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인간의 가치와 이데아, 이상, 목적의 속성으로 감성은 감각 지각이 일어나는 능력과 오성은 경험에서, 이성은 인간이 이치를 생각하는 능력이다. 즉 실천적 원리인 의지, 행동, 자율, 도덕이다. 전체의 원리로서 통일적 사유, 초감성적 이념이다. 절대적 인신세계에서의 인간을 지배하는 기본원리에 따른 이법이다.

사람은 로고스(logos, 언어)를 매체로 한 그 이성의 파도스(Pathos)를 바꾸어 말하면 만물의 질서를 구성하는 조화적 통일적

사유이다. 즉 신성이다. 상생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면 절대적 공생이 필수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답을 얻을 수 있다할 것인 바 인류는 나의 혈맥이고 이웃사촌들이며 나의 형제자매이다.

우리나라 청장년들이 해외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봉사자 봉사단체의 희생과 섬기는 활동은 분명히 신성한 파도스의 힘이다. 묵묵히 폐휴지 수집에 힘쓰는 노인들, 재활용품을 수집한 젊은이들, 노점에서나 상점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눈 발바다에서 건설현장, 학교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피땀 흘려 일하는 분들의 결실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원자재가 부족하고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이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의 지혜를 나누자. 사람은 나자마자 소리는 살아있다는 소리를, 살아가는 소리를, 삶의 마감의 소리를 내는 의미를 포함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생명의 존귀함에 지상명령을 알람이요, 또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며 무엇을 위하여 발전할 것이며 나아가 영예로운 삶의 모범을 보임과 동시 문화전승의 한몫을 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라는 가족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가정 사회 국가의 핵이다. 즉 모든 개인은 조직사회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환경을 만들어가며 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나 우리는 지구촌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이웃과 더불어 협력의 지혜가 결집되어 화친하여 행복을 향유하여야 할 것이다.

인류는 하나, 새로운 지혜의 길로

혈맥이 흐른 혈족이자 형제자매자간이며 이웃이다. 수십만의 신앙인들은 자차의 신을 긍정하고 인정하지는 것이다. 하느님

을 믿는 신앙자, 한울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 한얼님을 믿는 자, 마호메트는 알라신을 불교는 석가 윤회사상을 등등을 상호 존중하지는 것이다.

비로소 유신이든 무신이든 부정도 배격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오직 자유로움과 평등과 평온이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해는 갈등, 반목을 해소하여 불행의 소지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생사고락 속에서 사랑의 지혜를 배우고 실천에 옮기는 지구마을이 되기를 원한다.

성인들이 남기고 간 좋은 말들이 있지만 좋은 줄 알면서도 망각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우를 범한 현실이다. '부부간에 행복을 결정짓는 것처럼 단체나 한 가족의 번영을 초래하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세계평화의 유일한 근원도 오직 사랑이다' 라고 안창호는 금언을 남겼다. 플라톤의 인인에에선 사람의 대상의 개성을 존중하고 대상의 인격적 존엄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기주관의 충동이나 욕구관심을 만족시킬 때 느끼는 기쁨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공통 보편의 선을 지향하고 정신적 생활의 궁극적인 덕이어야 하며, 개인이나 종족의 생명보전을 위한 끈기있는 노력이어야 하며 최상의 이유도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

인류는 하나다. 선인견 편견 편파 봉당 이념투쟁 불신 다 버리고 불식시켜 정다움과 화열 안에서 친목하고 집목하여 화해해서 이룬 지구촌을 새로운 지혜의 길로 신천 매진하는 일이 과제이다.

◇편집국에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 지난달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보호받지 못하던 민간분야 공익신고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을 신고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정서가 있다. 그러나 공익

신고는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런 정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족과 사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익신고자는 민주주의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